

동해 '한미 연합훈련' 종료...뭘 남겼나

北 응징 메시지·한미동맹 전세계 과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군사조치 일환으로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됐다.

이번 훈련은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주일미군의 F-22(랩터) 전투기를 비롯한 한국형 구축함과 독도함, F-15K 등 양국의 최정예 전력의 참가한 가운데 진행돼 국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대규모 연합전력이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와 함께 억제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국제정치적으로는 미, 중간의 지역패권을 노린 신경전이 이번 훈련을 통해 표면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北 도발시 응징결의 행동화” = 동해 전역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시 응징한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명칭을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로 명명한 것도 양국의 굳은 결의를 북측에 전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해 항공모함을 참가시킨 가운데 이번처럼 대규모 무력시위를 한 것은 1976년 ‘818 도끼만행’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미국은 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중무장한 5척의 호위함, F-111 스텔스 전투기와 B-52 폭격기, F-4 비행대대를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했으며 오키나와에 있는 미해병대 1800명 등 지상군 1만2000여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지난 27일 국방위원들과 함께 한미 연합 훈련 '불굴의 의지'에 참가하고 있는 조지 워싱턴함을 방문, 훈련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독도함·F-22·F-15·K 등 최첨단 전력 대거 투입

미·중 지역패권 신경전 표면화...긴장국면 계속

명을 출동 대기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군의 압도적인 전력 전개에 놀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에서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잠수함을 비롯한 특수작전부대 침투, 공중도발 등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대잠수함 공방전 때는 대당 10억원 가량의 국산 신형 경어뢰인 ‘청상어’를 실제 발사해 격침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했다.

F-15K와 F-16, F/A-18A/C(호넷), F/A-18E/F(슈퍼호넷) 등 양국 공군 전투기들은 강원도 필승사격장과 경기도 승진훈련장으로 이동해 연합 공격전대군 훈련과 실무장폭격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중 지역패권 신경전 표면화” =미국과 중국의 지역 주도권 쟁탈 신경전이 이번 훈련을 통해 표면화했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중국은 한·미가 이번 훈련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시점에서

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며 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동중국해 해상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한데 이어 지난 7일에도 수십 척의 함정과 전투기 10여 대가 편제를 이뤄 동시 사격훈련을 하고 군함과 고속정에서 미사일과 유도탄을 발사하는 훈련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7일에는 서해 부근 내륙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실탄 사격훈련을 한 사실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 성격의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연합뉴스)

한일 지식인 1118명 “한국강제병합 원천 무효”

한일 지식인 1000여명이 100년 전 한국 강제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총리에게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양국 지식인들은 28일 오후 4시 도쿄 참

의원 의원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측 587명, 일본측 531명 등 1118명이 한국 강제병합 조약이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0일 양국 지식인 200여명이 서명한 공동 성명을 발표 한 뒤 참가자가 5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일본측 서명 인사들은 이날 회견에 앞서 사토시 국가전략상과 민주당 국제국장을 만나 “(한국강제병합 공포 100년인) 8월29일 총리의 식민지 지배 사과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日 “강제병합 100년 조용히 보내자”

일본 민주당 정권이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8월말을 앞두고 한국과 민감한 현안을 조정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이 30일로 예정됐던 2010년 관 방위백서 발표 시기를 8월말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은 “총리 관저가 주도한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 방위성

이나 외무성 같은 정부부처가 아니라 간 나오토 총리나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 등 정권 최고위층이라는 의미다.

일본 정권 핵심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것은 간 내각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점과 관계가 있다. 민주당 정권은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

서도 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서 65주년인 내달 15일이나 한국강제병합 조약 체결일인 내달 22일, 조약 공포일인 내달 29일 등 줄줄이 이어지는 일정을 어떻게든 대과 없이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STX 프랑스 생나제르 조선소 방문

사르코지 대통령 “적극 지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경제 각료를 이끌고 STX프랑스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STX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23일 재경부 및 산업부 장관과 함께 STX프랑스의 생나제르 조선소를 방문해 향후 생나제르 조선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 일행은 크루즈선의 강재를 생산 중인 강제절단공장과 균용 수송함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생나제르 조선소의 경영 현황을 점검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08년 누구도 생나제르 조선소의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STX그룹이 생나제르 조선소의 잠재성을 믿고 투자했다”며 “이후 균용 수송함, 크루즈선 등 잇따른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생나제르 조선소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 기지”라고 평가했다.

생나제르 조선소는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수주 가뭄을 겪었던 작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2만1000t급 규모의 헬리콥터 캐리어 1척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엔 크루즈선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2012년까지 일감이 밀려있는 상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프랑스 정부가 조성한 350억 유로 규모의 미래전략사업 투자기금 일부를 미래형 시범선 박 건조사업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STX 관계자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방문은 생나제르 조선소가 프랑스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라며 “프랑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3일 STX프랑스의 생나제르 조선소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조선소 직원들을 상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 여객기 추락 탑승객 150여명 전원 숨진 듯

28일(현지시각) 승객과 승무원 150여명을 태운 파키스탄 민간 항공사 ‘에어블루’ 소속 여객기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근처에서 추락했다.

외신들은 탑승자들이 대부분 사

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항당국에 따르면 승객 146명(에어블루 발표 14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이 여객기는 폭우속에서 목격지인 이슬라마바드 부도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오전 10시경 공항

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마르갈라 언덕(Margalla Hills)의 산마루에 충돌했다.

사고 발생지는 카라치 국제공항에서 이날 오전 7시45분경 이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현재까지 탑승자 90여명의 시신 또는 신체 일부가 수습된 가운데, 생존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구 조요원들의 전언과 여객기의 파손 상태로 미뤄 탑승자들은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5명이 헬기편으로 후송된 사실이 전해졌지만 이들의 생존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연합뉴스)

